

바른 디자인

1.

바른 디자인이란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디자인이다.

“고정관념을 깨는 디자인은 이제 또 다른 고정관념이 됐다. 새롭거나 다르거나 편리하거나 이제는 지속가능하기 위해 고정관념을 깨는 디자인들, 또는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전형’이 되려는 노력들은 계속되고 있다. 과연 디자인의 정답을 찾을 수 있을까.”(3월호 도입글 중에서)
디자인에 한가지로 딱 떨어지는 정답은 없을지라도 이런 물음을 던질 필요는 있다. “디자인이 가야할 길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빅터 파파네크(Victor Papanek)은 자신의 저서인 《인간을 위한 디자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디자인은 인간이 도구와 환경을, 더 나아가 사회와 자아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어 왔으며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에게는 높은 사회적, 도덕적 책임이 요구된다.”(빅터 파파네크와 같은 디자인 비평가는 물론 여러 디자이너들의 의식에 대해서 6월호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다.) 디자이너는 끊임없이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디자인 작업을 위한 개인적인 고민의 끝은 현대의 다른 이들의 고민과 맞닿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거쳤을 때 비로소 ‘바른 디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난해 4월호부터 6월호까지 ‘에코 디자인’

에 대한 특집기사를 소개하면서 현대에 필요한 ‘바른 디자인’의 한 예를 살펴봤다. 이번호부터 3달간 ‘바른 디자인’을 새롭게 정의해 보면서 그 첫 번째 순서로 2010년 세계적 디자인 뮤지엄들이 주목하는 디자인을 소개하려 한다. 올해 영국의 디자인 뮤지엄(Design Museum), 미국의 쿠퍼-휴잇, 내셔널 디자인 뮤지엄(Cooper-Hewit, National Design Museum)과 모마(MoMA)는 우리와 비슷한 질문을 디자인계와 대중에게 던진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나누기 위해 그들 스스로 먼저 힌트를 던진다. 현 시대의 중요한 쟁점을 이해하고, 긴급한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는 건축과 디자인 작업들이 바로 그것이다. 고맙게도 여기서 우리는 ‘바른 디자인’을 위한 키워드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속가능한 미래’ ‘현재’ ‘인류’ ‘환경’ ‘기후 변화’ ‘도시’ 등이 그것이다. 그래서 바른 디자인이란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디자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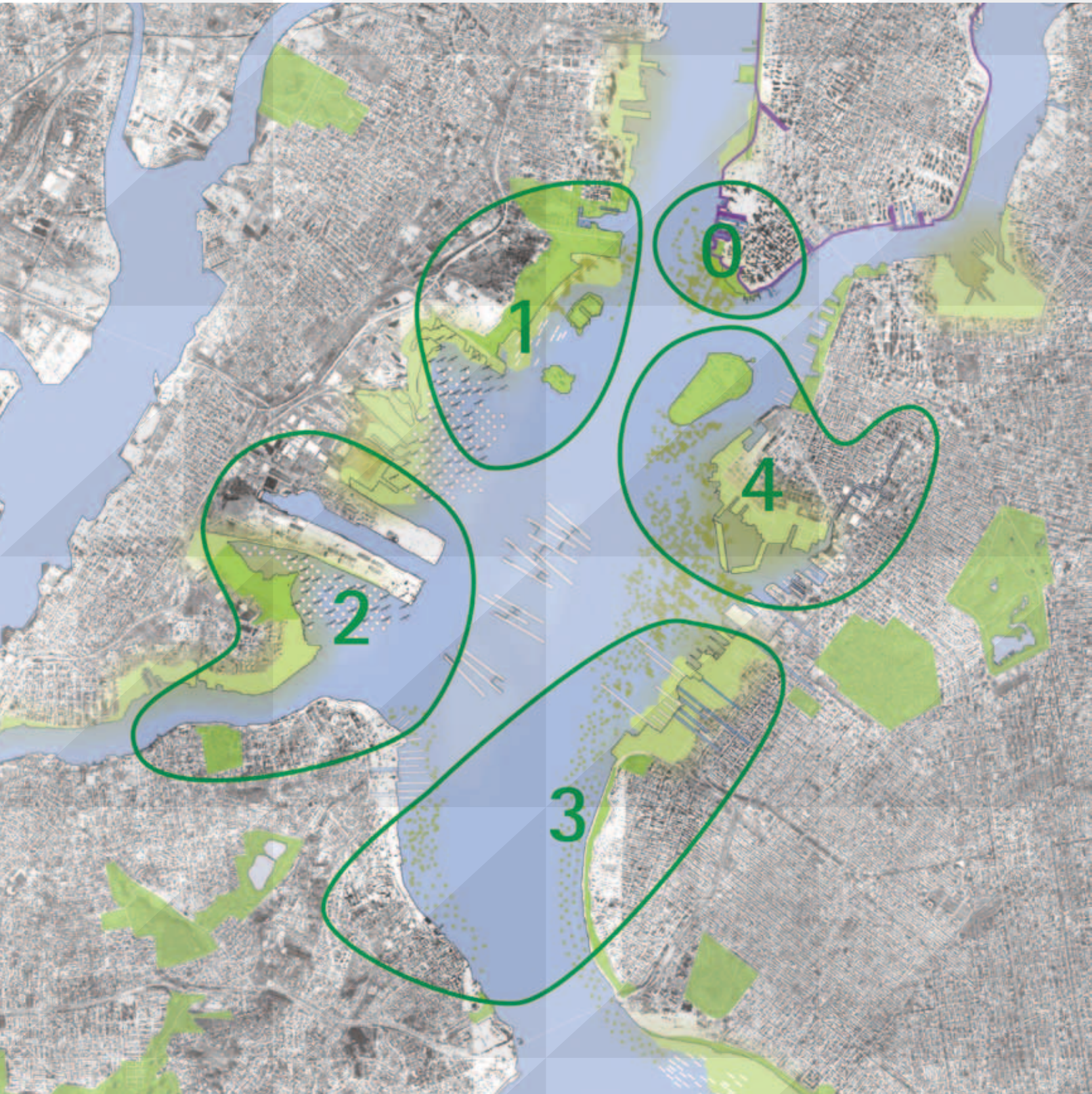
에디터 김지혜

Sustainable Futures – can design make a difference

Why Design Now?

Rising Currents: Projects for New York's Waterfront





(옆 페이지)
프로젝트 구역 지도

(아래)
펠리세이드 베이(Palisade Bay)



떠오르는 흐름: 뉴욕의 해안을 위한 프로젝트들

모마는 뉴욕 디자인계가 응답을 필요로 하는 세 가지 긴급한 일에 당면했다고 여겼다. 첫째로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적인 영향과 다음 십년 동안 상승할 해수면의 높이, 둘째로 국가적 관심이 쇠퇴하는 것은 물론 혁신적인 사회 기반 시설 양쪽에 집중되는 것, 마지막으로 경제하락으로 인해 뉴욕시의 건축 디자인 재능들이 발휘될 수 없는 불균형한 상황을 주시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로 인해 디자인과 사회 기반 시설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여겼다. 특히 기후 조건들의 변화와 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지난해 2월, 뉴욕의 시장이었던 마이클 블룸버그(Michael Bloomberg)가 발표한 뉴욕시 기후 변화 위원회의 보고서가 이를 더 확인시켰다. 뉴욕시의 높아진 온도와 해수면의 상승을 예견하는 내용이었다. 뉴욕에 위치한 모마는 이러한 상황들을 지나치지 않았고 P.S.1 현대 예술 센터와 함께 지난해 가을부터 '떠오르는 흐름: 뉴욕의 해안을 위한 프로젝트들(Rising Currents: Projects for New York's Waterfront)'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연구에 대한 결과를 지난달 24부터 전시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이 뜻 깊은 연구에 앞서 선구적인 발견이 있었는데, 이는 미국 건축가협회(AIA :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의 회원들이 지원하는, 다학제적인 프린스턴 대학(Princeton University)의 라트로브(Latrobe) 팀에 의해 착수됐다. 구조 공학 교수인 가이 노던슨(Guy Nordenson)의 지도 아래 이들은 특히 뉴욕이나 뉴저지 지역에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함을 검증했다. 2009년 4월에 간행된 라트로브 팀의 최종 보고서는 19세기와 20세기의 '하드 인프라스트럭처(Hard

Infrastructure)' 보다 '소프트 인프라스트럭처(Soft Infrastructure)'의 사용을 탐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드 인프라스트럭처'인 비싸고, 생태학적으로 책임이 없고, 수시로 효과 없음이 입증된 파이프라인 워터 배수 시설망과 거대한 방벽들보다 홍수와 폭풍해일의 피해를 줄이는 '소프트 인프라스트럭처'가 낫다는 것이다. 라트로브 팀의 '어퍼 베이(Upper Bay)'를 위한 대안적인 기본 계획안은 사실 항구의 강어귀 환경에 유리한 '소프트 인프라스트럭처'의 창의적인 디자인에 집중됐다. 예를 들어 습지대와 폭풍우 수거, 굴 양식장, 인공 방벽과 땅을 파 건설한 수문 섬, 강바닥을 준설하는 재료, 오래된 전철로 만들어진 인공 암초, 개축하고 늘어난 부두와 파도 에너지를 캐트리는 슬립 등이다. 또 이 '소프트 인프라스트럭처'의 개발은 조수 작용과 풍력 터빈, 조류 사육장, 블루 에너지를 통해 그린 에너지를 개발하는 방법들을 제공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라트로브 팀의 기본 계획안은 '떠오르는 흐름: 뉴욕의 해안을 위한 프로젝트들'에 참여하게 된 젊은 디자이너들이 제안한 계획안의 안내서 역할을 했다. 5개의 팀은 전시에 앞서 P.S.1에서 8주 동안 워크숍에 참여했고, 이를 통해 전시를 위한 제안서들을 개발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인 디지털 모델들과 드로잉이 지난달부터 전시되고 있다. 5개의 팀은 모마의 전시 디자인 및 제작팀원들과 함께 전시를 디자인하는데 참여했다. '떠오르는 흐름: 뉴욕의 해안을 위한 프로젝트들'은 건축에서 발전 가능한 쟁점들에 대한 대중적인 대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그리고 도시 차원의 현대 건축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때에 걸맞은 건축과 디자인 전시다.

새로운 지상 도시(A New Urban Ground)

1600년대 초 네덜란드 개척자들은 무역을 용이하게 하고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독을 만들고 성장하는 도시를 보호하기 위한 방파제도 만들었다. 이러한 구조들이 차츰 섬의 습지 경계를 지워버리는 동안 현대 도시의 방파제는 미래의 해수면의 높이와 폭풍해일을 견디지 못하게 됐다. ARO(Architecture Research Office)와 디랜드스튜디오(dlandstudio)는 로어 맨해튼(Lower Manhattan)의 ‘소프트 인프라스트럭처’와 ‘하드 인프라스트럭처’를 결합한 사회적 기반 시설의 해결점을 찾고 비전을 계획하고자 파트너가 됐다. 그들의 계획에 의하면 다운타운은 소금과 신선한 물 습지대들의 소개, 추가적인 정원, 자연적 공간으로 새롭게 다시 표현된 길거리의 등장과 함께 푸르러지게 된다. 도시 현대화의 역사는 길거리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폐수의 순환과 처리 같은 지상 수송을 넘어 주요 도시 기능들을 수행해왔던 거리는 자연과 불화하도록 만들어진 기계처럼 여겨졌다. ARO와 디랜드스튜디오는 로어 맨해튼을 콘크리트, 유전자개발을 통한 토양 내성 식물과 소금 관용 식물들의 그물망으로 포장할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이 지역을 결과적으로 친환경적일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도시에서 빗물을 흡수하는 스펀지로서 작용할 것이다. 새롭게 개발된 이 새로운 습지대 등의 유기능 시스템은 매일 조수와 임의의 폭풍해일에 대항하는 추가적인 완충기로서 작동하며 섬의 자연적인 역동성을 되돌릴 것이다.

물 성능 시험장(Water Proving Ground)

리버티 스테이트 파크(Liberty State Park), 자유의 여신상과 엘리스 아일랜드(Ellis Island)를 포함하는 이 구역의 많은 것은 해수면 상승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LTL 아키텍츠가 지도한 팀은 이 지역의 미래를 마음에 품었다. 1860년부터 1928년 사이에 운영됐던 항구로 향하던 철도와 함께 이곳에서는 큰 매립공사들이 이뤄졌다. 물에 의해 한정된 노경의 문제에 따라 LTL 아키텍츠는 물의 연속적인 역동성, 합성물과 토피 모양의 해안선의 단면도를 바꾸는 변화 조건에 걸맞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무엇을 필요로 할지 상상했다. 그리고 물의 가장자리를 정의하는 높은 방파제 같은 전통적 방어수단들과는 다르게 해안선을 45마일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미래 도시 생활의 다양한 가능성을 갖춘 완전히 새로운 조경을 창조한 것이다. 또 바다와 땅 사이의 모호함을 잇는 새로운 구조는 기존의 매립지에 의해 조각된 4개의 울려진 ‘손가락들’의 시리즈로 보호지역 및 생산지역 모두를 위한 것이다. 새롭게 드러난 조경은 고속도로 장벽과 접근의 어려움에 의해 차단된 현재의 리버티 스테이트 파크와는 반대로 공원과 생산적인 지역을 창조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뉴저지 본토에 다시 연결된다. LTL 아키텍츠는 지상과 바다의 교통 시스템으로 상호 연결되는 하이브리드 지상과 바다의 다양한 사용을 제시했다. 즉 지상에서 경작하는 것에서부터 수경 재배, 개조까지 생태학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 또 다가올 10년 동안 바다에 집어삼켜질 수 있는 지역들을 위해 뉴욕보다 베니스를 암시하는 새로운 종류의 수중 공간을 제안했다. 뉴저지 해안가의 이러한 프로젝트는 2100년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세계의 수백만의 시민들을 위한 모범적인 해안 점거 사례가 될 것이다. **NN**

1

0구역: 새로운 도시 지상(A New Urban Ground)
팀 지도자: ARO (Architecture Research Office)의 아담 아린스키(Adam Yarinsky)와 스티븐 카셀(Stephen Cassell), 디랜드스튜디오(dlandstudio)의 수잔나 드레이크(Susannah Drake)
지역: 로어 맨해튼(Lower Manhattan)

2

1구역: 물 성능 시험장(Water Proving Ground)
팀 지도자: LTL 아키텍츠(LTL Architects)의 폴 루이스(Paul Lewis), 마크 츠루마키(Marc Tsurumaki), 데이비드 J. 루이스(David J. Lewis)
지역: 리버티 스테이트 파크(Liberty State Park)

3

3구역: 새로운 수중 도시(New Aqueous City)
팀 지도자: 에릭 벙기(Eric Bunge)와 미니 호앙(Mimi Hoang), 앤아키텍처스(nARCHITECTS)
지역: 선셋 파크(Sunset Park), 베이 릿지(Bay Ridge), 스테이트 아일랜드(Staten Island)

4

2구역: 해안선 작업(Working Waterline)
팀 지도자: 매튜 베어드(Matthew Baird), 매튜 베어드 아키텍처스(Matthew Baird Architects)
지역: 킬 반 쿨(Kill Van Kull), 베이온(Bayon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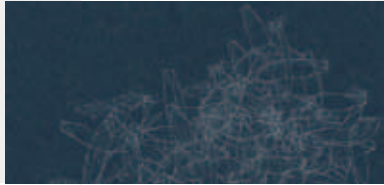
5, 6

4구역: 오이스터-텍처(Oyster-Tecture)
팀 지도자: 스케이프(SCAPE)의 케이트 오르프(Kate Orff),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PLLC(Landscape Architecture PLLC)
지역: 고와너스 운하(Gowanus Canal), 레드 후크(Red Hook), 버터밀크 채널(Buttermilk Channel)



1

2



4



5



6



3

‘떠오르는 흐름: 뉴욕의 해안가를 위한 프로젝트들’을 기획하게 된 배경은?

거의 2년 전에 가이 노던슨이 처음 ‘물 위에서: 팰리세이드 베이(On The Water: Palisade Bay)’의 초안을 발표했을 때, 나는 그와 모마에서 진행할 프로젝트에 대해 의논하기 시작했다. 이미 전 세계 도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기후변화와 해수면의 상승이 수반하는 많은 문제들은 서서히 축적되면서 계속되고 있다. 세계의 15개의 큰 도시들은 홍수 지역에 있는데다 이미 녹기 시작한 남극 대륙에 대한 최근의 보고서를 포함해 많은 연구에서는 앞선 자료들에서는 이미 발표된 다음 반세기에 일어날 해수면의 상승 정도가 실제로 적게 잡힌 것이라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들은 미국의 커다란 도시 지역에서도 피할 수 없다. 또한 지난 일 년 반 동안 심각한 경제 불황으로 뉴욕의 건축과 조경 디자인 분야의 재능 있는 이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가장 큰 대도시가 직면한 시급한 문제들을 더 많은 일반 대중에게 전하기 위해 모마에서 워크숍과 전시를 준비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글로벌(Glocal)’의 철학과도 일치한다.

어떤 기준으로 지역을 정하고 프로젝트팀을 구성했는가?

지난해 가을 60명의 교육자와 대표적인 건축 전문가들, 조경 건축가, 공학자들에게 안내장을 보냈다. 10년 이하의 경력이 있는 회사 대표로서 현재의 경기침체에서도 자신들의 회사에서 팀을 모을 수 있는 젊은 디자인 인재들을 후보자로 추천받기 위해서였다. 모마와 P.S.1의 큐레이터들을 비롯한 심사위원단은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검토하기 위해 모였다. 나를 포함해 뉴욕 도시 계획의 회장이자 도시 계획부의 디렉터인 아만다 버든(Amanda Burden)과 여러 회사 대표, 가이 노던슨 등의 교수들이 초대됐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10개의 팀들이 면접을 봤고 그 자리에서 뉴올리언스(New Orleans)와 샌프란시스코의 재능 있는 디자이너들이 흥미로운 발표를 했지만 심사위원들은 뉴욕에 있는 다른 4개의 건축과 조경 스튜디오를 뽑았다. 선택된 4개의 팀들은 P.S.1의 스튜디오 공간을 배정받게 됐다. 또 건축 연구소의 대표이자 ‘팰리세이드 베이’ 연구 내용과 맨해튼을 위한 프로젝트를 개발한 아담 아린스키(Adam Yarinsky)가 이끄는 팀과 합류했다. 각 팀의 리더들은 대부분 중소디자인회사의 대표거나 건축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난 해 가을과 겨울 8주 동안 디자인 워크숍을 통해 ‘팰리세이드 베이’팀이 분석한 물의 여구지역 안에 있는 5개의 큰 지역들을 조사했다. 각각의 장소들은 새로운 계획의 사용과 ‘소프트 인프라스트럭처’ 디자인의 결합들로 이뤄진 구체적인 계획안을 위한 건축가, 공학자, 조경 디자이너로 이뤄진 5개의 다학제팀에게 할당됐다. 단순히 최근 진행 중인 작업을 통한 5개의 디자인을 선별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보다는 세계적인 긴급한 문제들이지만 지역적으로는 신청과 응답으로 가능한 일에 대해 여러 분야가 연관된 방법을 통해 새로운 조사를 착수하기 위한 초대였다. 나와 가이 노던슨, 캐서린 시비트(Catherine Seavitt), 팀에 의해 초대된 외부 손님들이 8주 동안 매주 리뷰를 했던 내용이 지난 1월 구두점을 찍었다. 그동안 우리 모두는 기이 놀랄만한 협력 정신과 의견 교환을 했다. 그리고 지난 3월 24일, 모마는 이번에도 새로운 생각들의 인큐베이터로서 거의 전례가 없는 결과물들을 전시장에 내놓았다. ‘떠오르는 흐름: 뉴욕의 해안가를 위한 프로젝트들’의 과정은 두 가지 양상을 나타낸다. 뉴욕 항구의 늘어나는 물에 응답하기 위한 것과 상대적으로 젊은 디자이너들을 초대하는 것으로 말이다. 5개 팀의 작업은 이미 진행 중이다.

후원은 어떻게 이뤄졌나?

국가적 기후변화와 사회 기반 시설에 관한 논쟁에 동참하도록 요구되는 디자인 작업의 전형을 복돋고 기금으로 건설공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모마의 건축과 디자인 부서는 로케펠러 파운데이션(Rockefeller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았다.

워크숍과 전시에 소개된 5개 팀의 계획안 외에도 프로젝트의 주제를 보여주는 다른 요소가 있나?

일반 대중이 건축적 연구와 디자인의 분위기를 느끼고 진행 중인 팀의 작업에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오픈하우스 날에 두 차례 초대됐다. 5팀의 마지막 결과들이 올해 8월 9일까지 6개월 동안 모마의 멘첼 갤러리(Menschel Gallery)에서 전시될 것이다. 또 그 과정과 결과물은 웹사이트(www.moma.org/risingcurrents)에서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위태로운 중요한 문제들과 워크숍 동안 다섯 개의 팀들이 성취한 결과에 대한 생각을 나누기 위해 초대된 생태학, 건축, 엔지니어링, 도시 행정 관련 주요 인물들이 ‘인사이드/아웃: 모마/P.S.1 블로그(www.moma.org/insideout)’에 지속적으로 포스팅할 것이다. 워크숍, 전시, 블로그는 모마에서 진행 중인 실험의 한 부분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가장 긴급한 최근의 쟁점들은 물론 건축 디자인 방법들에 잡아끌기 위한 새로운 수단들이다.

프로젝트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워크숍 작업과 전시는 모두 현실의 문제들을 책임지기 위한 디자인 작업, 침착하고 긍정적인 ‘물 위에서(On the Water)’의 작업들을 위해 열렸다. 또 현대 디자이너의 작업이 이전에 처한 적 없는 커다란 환경적 변화들에 대해 책임을 갖는 생산적인 방법들로 변형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뉴욕의 미래를 약속하기 위한 것이다.

디자인과 미래의 디자이너의 역할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말해 달라.

세계의 많은 지역,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디자이너들이 하드와 소프트 인프라스트럭처를 담당하는 수력 공학자들과 기후 과학자들과 함께 손잡는 전통이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맥락에서 현저히 느리다. 지금까지의 기후변화에 대한 토론은 탄소 배출량의 문제에 크게 집중돼 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의 모든 지식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소하지 못하고 단지 완화시킬 수 있었다. 지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Hurricane Katrina)’의 효력이 비극적인 예시로 생생하게 남아있다. 교통수단에 수반되는 모든 문제들과 함께 해안 지역들의 조경을 매일 새롭게 디자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짐에 따라 학문적인 스튜디오에서 많은 작업들이 이뤄졌다. 앞서 말했듯 2008년 가을부터 집중된 경제 위기는 많은 디자이너들을 한가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 아래 인상적인 기반 시설들이 투자되는 결과를 낳았다. 시민들이 다시 일할 수 있게 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프로젝트인 ‘셔블-레디(Shovel-Ready)’에 경제적 관심과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 특히 인도양의 몰디브 해안이 몇 년 안에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는 소식은 현재 상황을 극도로 보게 하는 만큼 환경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을 찾으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예를 들어 ‘팰리세이드 베이’팀은 격렬하지 않고 간단한 방법으로 문제를 방어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했고, 현실적인 조사들과 이상적인 주관의 합의를 찾으려 시도했다. ‘떠오르는 흐름: 뉴욕의 해안가를 위한 프로젝트들’을 통해서도 디자인의 문제 해결 능력과 디자이너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배리 벅돌(Barry Bergdoll), 모마 건축과 디자인 수석 큐레이터
 Photo: 로빈 홀란드(Robin Holland)